

# 순창군-담양군, 민간분야 교류 협력

### 13개 사회단체 참여... 경마공원 공동 유치·단체 간 교류 프로그램 추진 박차

순창군과 담양군이 민간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열고,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순창군은 10일 담양군청 면양정실에서 '순창군-담양군 민간분야 교류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범죄예방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재향경우회, 적십자봉사회 등 13개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군수실 차담을 시작으로 협상자 소개, 군수 및 군의회 의장 인사말, 협약서 낭독 및 서명, 기념선물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양 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마공원 유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이 이어지며,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생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순창군과 담양군은 이번 민간 분야 자매결연을 통해 행정 협력을 넘어 △사회단체 교류 확대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 교류 △농특산물 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 △안전·방범 분야 협력 등 생활 밀착형 협력사업을 적극



순창군은 10일 담양군청 면양정실에서 '순창군-담양군 민간분야 교류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마공원 공동 유치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 상호 방문, 축제 대표단 교류, 주민자치·새마을·체육·여성단체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민간분야 협약은 순창군과 담양군이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 온 상생 협력을 한 단계 확장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교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

라며 "특히, 호남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과천 경마공원 유치 등 현안사업들이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9월 9일 순창군과 담양군간 지자체 자매결연 협약을 시작으로 11월 19일에는 양 지역 농·축협간 자매결연에 이어, 5개 면 지역간 상호 자매결연도 추진하여 각계각층에서 상호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성탄 경관을 선사하며, 겨울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메리크리스마스' 성탄 경관선사

###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봉어섬 생태공원에 트리·포토존 등 연출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성탄 경관을 선사하며, 겨울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12월을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경관 연출을 위해 매포스 주변에 마련된 6m의 대형 트리를 시작으로 공원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화려한 연출물들이 조성됐다.

특히 출렁다리를 건너 봉어섬 도착부에 설치된 3개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뒷배경으로 보이는 출렁다리 주탑과 함께 사진을 남기기 좋은 포토존으로 방문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봉어섬 곳곳에 설치된 트리과 중·대형 리스,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들은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동심을 불러일으키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수목의 기둥을 감싸 해충방제와 보은 및 보호 기능을 하는 잠복소를 크

리스마스 무늬가 들어간 감각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12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군은 지난 가을에 국화경관과 구절초 등 가을꽃 경관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든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에 겨울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계절경관 조성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계절 초화류 식재뿐 아니라 경관수목 및 다년생 초화류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 작업도 한창이다. 벗짚과 새끼줄을 이용한 보온용 방막을 만들어 수국과 홍가시나무, 은목서 등 비교적 추위에 약한 수목들을 감싸 주는 작업을 완료했다.

심 민 군수는 "봉어섬 생태공원은 계절마다 서로 다른 색다른 풍경을 보여주지만, 특히 겨울은 조용한 감동이 있는 시기"라며 "봉어섬 생태공원을 둘러보시면서 편안함 속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 순창군 서순창농협,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대상'

순창군 서순창농협이 '제5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선발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단지의 다수확 생산기술 등 운영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국산 콩 생산 경영체의 전문화와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항목은 단지 운영, 다수확 인정

생산체계, 수확 후 관리역량, 종합평가 등이다.

특히 서순창농협은 지역 농가와의 긴밀한 협력 및 교육 지원을 통해 국산콩 생산량의 안정화와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속가능한 재배 기술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점이 대상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친절행정 정착 교육 실시

남원시는 10일, 민원실에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친절행정 정착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외부 감사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이 실제 민원 응대 사례를 기반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으로, 창구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민원인의 감정 대응법, 복잡한 민원 설명

을 쉽게 설명,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친절교육의 주요 성과와 변화도 함께 점검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내부 직원이 직접 감사가 되는 친절 교육은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명확히 짚어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다"라



며, "2026년에도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민원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비번 소방관, 초기 진압으로 화재 확산 막아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8일 전주 덕진구 소재 커피 버티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번이던 남원소방서 소속 유성경 소방교가 초기 진압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유 소방교는 이날 13시경 인근을 지내던 중 검은 연기를 포착하고 즉시 119에 신고, 이후 불길기 생활폐기물

주변으로 번지며 확산 우려로 주변에 비번진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에 나섰다.

신고 8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했으며, 커피 폐기물 일부가 소실되고 인근 차량에 그물을 피해가 발생하는 수준에서 완전히 진압됐다.

올해 5년차인 유성경 소방교는 "소방관이러면 근무 중이든 비번이든 위험 상황에서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현 광통부(廣通府)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이 놓였는데, 여덟개의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